

고령화시대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학습

노일경*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책임연구원

고령화시대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학습

《요 약》

-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학습에 관한 논의는 은퇴 이후의 경제적 자립 ‘준비를 위한 학습’관심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생 전반에 걸쳐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고 형성해가는 일련의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지원의 논의로 전개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학습 참여 현황, 참여 장애요인, 학습 요구 및 베이비붐 세대 대상의 평생학습 정책 지원 현황과 인생 설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생애 주기별, 단계별 과제 및 관련 학습 요구에 대한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필요.
 - 학령기 이후의 성인 교육과 학습과정을 ‘연장된 공교육 과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
 - 다양한 교육훈련자원이 공공 및 민간 영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의 유기적 연계·공급을 위한 통합적 관리 인프라 구축.
 -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장기적·체계적 교육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고등교육에의 참여 기회를 제고하는 방안 강구.
 - 직업 및 경력 전환을 추구하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적합한 직업연구 수행 및 직업교육과정 운영, 더불어 제2의 인생에 적합한 일과 삶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발

I. 문제제기

- 우리나라 고령화시대를 열어가는 첫 세대로서 베이비붐 세대
 - 우리나라의 고령화시대 도래에 가속도를 붙인 세대로서, 베이비붐 첫 세대인 1955년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2020년부터 노령인구 수가 급격히 증가.
 - 베이비붐 세대는 출산율이 급증한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로서 향후 여명이 약 30여년 정도 기대되는 세대임.
 - ※ 2006년 「장래인구추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712.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6%를 차지하게 됨.
 - ※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은 고령화(ageing)사회, 14% 이상은 고령(aged)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정의함.

-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주목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생애 주기가 길어지면서, 개인의 생애 사건이었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사회적 담론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면서 비롯됨
 -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들로써 사회적으로 ‘세대’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지하게 한 사람들임.
 - 또한 현재, 향후 은퇴를 앞두고 충분한 은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과 독립 및 주택 마련 등으로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임.
 - 이에, 해당 세대의 각 개인으로서의 생활 유지 및 준비의 문제와 해당 세대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적 문제, 즉,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노인복지 확대에 의한 사회적 부담 및 공공 지출의 증가 등의 과제에 사회·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세대에의 관심이 증폭됨.

-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이들을 대체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세대(1983~ 1991년생, 587만 명 추산)의 인구 규모는 현저하게 작아 노동력 공급의 급격한 불균형이 야기(손유미, 2011)
-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2060년에 기금 소진이 예상(윤석명 외, 2011)

▣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학습 논의는 은퇴 이후의 ‘준비를 위한 학습’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생 전반에 걸쳐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고 형성해가는 일련의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에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의 논의로 전개되어야 함.

- 베이비붐 세대의 학습 요구는 은퇴 이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인생 후반부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생애 과제의 문제와 연관되어 발생.
- 이에 개별적인 생애 설계 및 형성의 문제를 성, 연령,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사회적 구분요인 등으로 판별하여 군집화하고, 그에 따른 학습 요구를 파악하여 사회적 교육훈련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음.
- 즉, 장기적 생애와 관련된 평생학습의 정책적 과제는 개인의 생애 설계와 형성의 평생학습과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학습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교육훈련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안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을 것임.

II.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학습 참여 현황 및 요구

▣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

- 이전 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이지만, 대학 미진학 비율도 72%가량 되므로 대학 진학에의 기대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

〈표 1〉 세대별 학력 수준 (단위: 천 명, %)

구분	60세 이상	51~59세	42~50세
초졸 이하	3,974(63.5)	1,166(26.3)	623(8.7)
중학교	848(13.5)	1,053(23.7)	1,188(16.7)
고등학교	598(14.3)	1,484(33.5)	3,286(46.1)
대학교	475(7.6)	619(14.0)	1,752(24.6)
대학원	62(1.0)	114(2.6)	281(3.9)

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2005)

▣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학습 참여율

● 전체 참여율

-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5.2%이며, 형식교육보다 비형식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

〈표 2〉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연령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25~34세	37.3	9.0	32.0	19.7
35~44세	33.1	2.2	31.8	18.0
45~54세	25.2	1.1	24.3	11.5
55~64세	21.2	2.0	20.5	6.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 형식교육 참여율

- 형식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대학원 참여율이 높아 일부 고학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형식교육(대학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학과정에서는 일반대학, 방송대, 사이버대의 참여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표 3〉 연령별 형식교육 참여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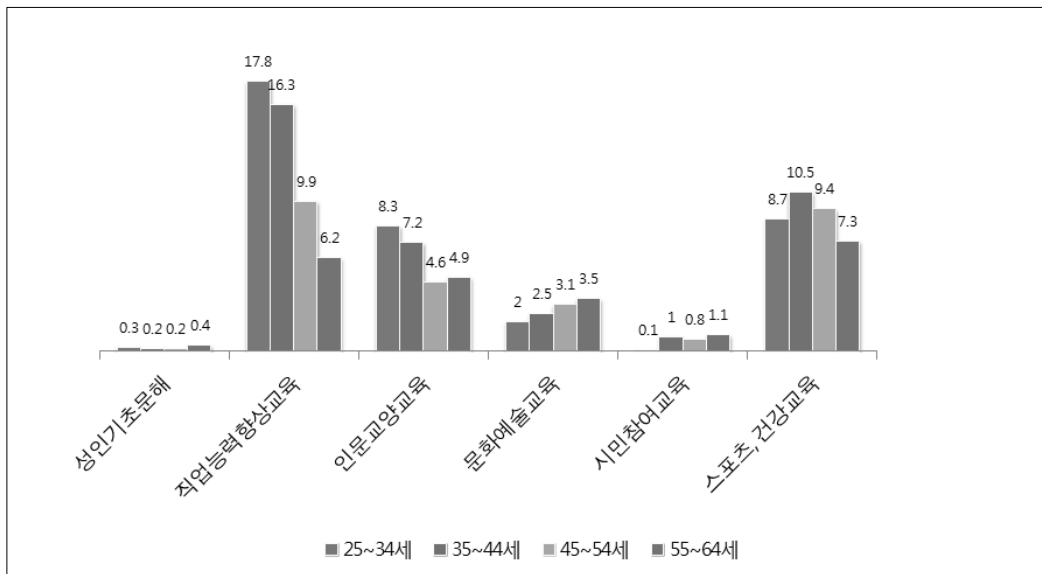
연령	초·중·고 검정고시	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 대학교	사이버원격 대학	고등학력 보완교육*
25~34세	0.0	59.4	22.5	13.0	1.5	3.5
35~44세	8.3	15.8	24.4	20.5	29.2	1.9
45~54세	15.5	17.1	38.1	14.7	14.6	0.0
55~64세	10.0	0.0	33.8	56.2	0.0	0.0

주: 고등학력 보완교육-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 비형식교육 영역별 참여율

- 형식교육보다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으며, 그 가운데 직업능력향상교육, 스포츠 및 건강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순으로 높은 참여도를 보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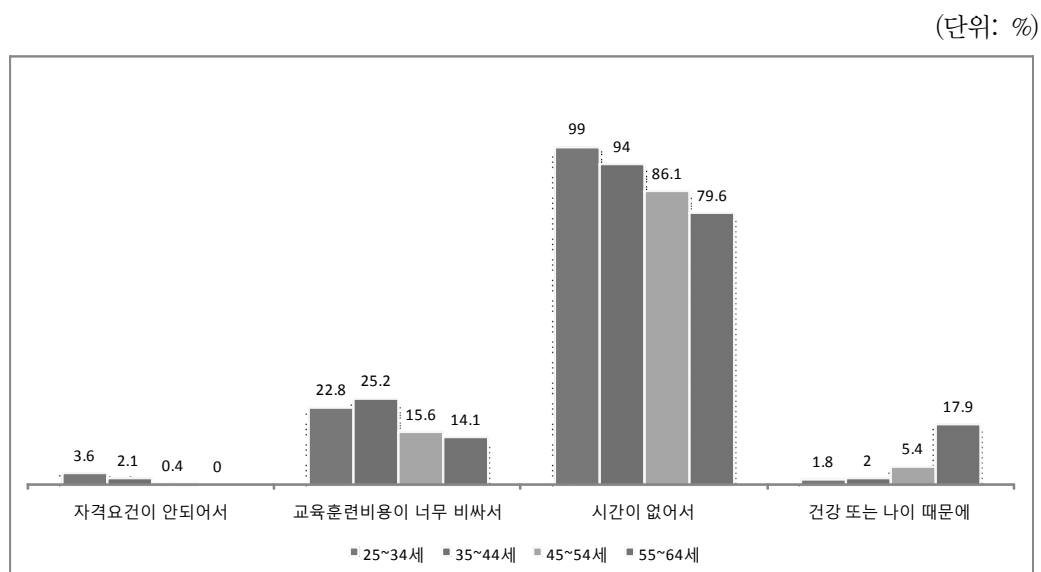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그림 1] 연령별 비형식교육 영역별 참여율

●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

- 베이비붐 세대는 평생학습 장애요인으로 86.1%가 시간 부족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비용 문제를 들고 있음.



주: base- 참여 의사가 있었으나 불참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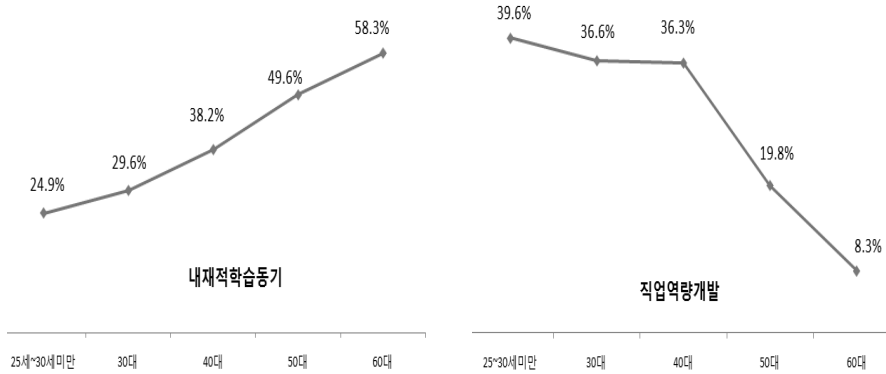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그림 2]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

☑ 베이비붐 세대의 학습 요구

● 형식교육에서의 요구

- 40대 이전까지는 주로 직업역량 향상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요구가, 50대 이후에는 내재적인 학습 동기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40대와 50대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내용 차이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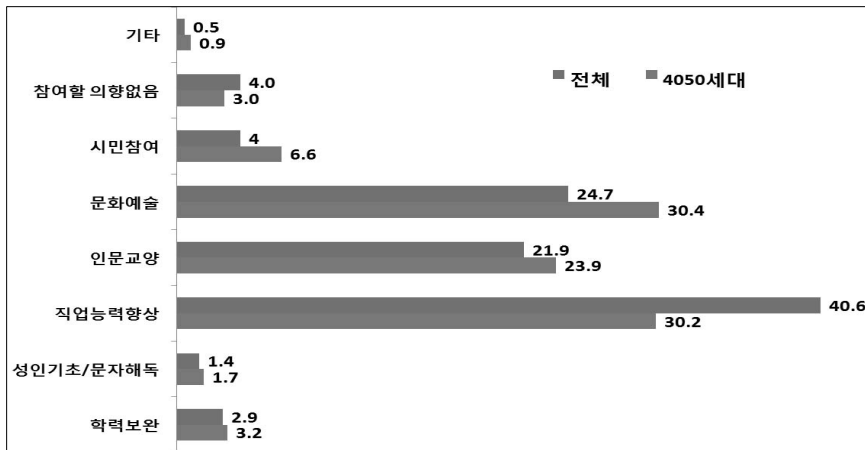
주: n=5,062
 자료: 손진곤 외(2010), 방송대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연구(1차년도)

[그림 3] 베이비붐 세대의 학습 요구(형식교육)

● 비형식교육에서의 요구

- 비형식교육 영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학습 요구가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비형식교육 참여 형태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음.

(단위: %)



주: n=5,062
 자료: 손진곤 외(2010), 방송대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연구(1차년도)

[그림 4] 베이비붐 세대의 학습 요구(비형식교육)

- 형식교육 요구 내용에서 나타난 연령별 학습 요구의 차별성과 비형식교육 요구 내용에서 나타난 영역별 학습 요구에의 편재성 등은 베이비붐 세대 내에 다양하고 다층적인 학습 요구가 있음을 드러냄. 이는 곧, 개인이 처한, 사회, 경제, 문화, 직업적 맥락에 따라 차별적으로 학습 요구를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임.
 - 이와 같은 학습 요구 파악 과정에서의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은 은퇴 및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소정 외, 2008) 결과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노후에 대한 걱정: 남성은 생활비용과 가족 부양에 대한 걱정이, 여성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음. 연령별로 45~49세는 생활비용에 대한 걱정이, 그리고 60세 이상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음. 학력별로는 중졸은 건강, 고졸은 생활비용, 대졸은 무위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음.
 - 희망하는 노후 활동: 취미·여가활동 41.9%, 종교생활 15.7%, 자원봉사활동 13.3%, 친목활동 12.6%, 현 직업 관련 일 8.0%, 새로운 일을 희망함 3.1%로 나타남. 일을 희망하는 비율은 월수입이 낮은 계층에서 높음.
 - 은퇴 희망 시기와 일에 대한 태도: 늦은 은퇴를 원하지만, 은퇴한 후 전직과 관련된 일,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적음.
 -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노후 준비를 일찍 시작.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력이 높은 집단은 관심이 있으나 방법을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학력 수준이 낮은 집단은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에 대한 이해와 공감 정도가 부족하다고 응답.
- ※ 전국 45~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45~59세 총 835명, 남 421명, 여 414명)

▣ 베이비붐 세대 대상 평생학습 정책 지원

-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은 대부분 고령자지원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음. 2000년 이후 정부 정책은 주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추진됨.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으로는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8~ 2012)에 나타난 중고령자 대상 지원 계획의 내용과 일부 관련된 정책 사업으로 설명될 수 있음(평생교육진흥원, 2011).
 - 특히,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서는 생애 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과 관련하여 각 연

령별 정책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은퇴기 이후 시기의 과제인 환경변화 대응 및 세대 간 적응 프로그램 등 생활형 프로그램 개발 제공이란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정책 개발 및 시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 생애 단계는 성인 입문(20~24세), 성인 전기(25~39세), 생애 제1전환기(40~44세), 성인 중기(45~54세), 생애 제2전환기(55~59세), 성인 후기(60~69세), 성인 완성정리기(70세 이상)의 7단계로 구분하였고, 각 단계별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또한 평생교육정책 지원사업 중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정책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들 수 있음.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107,495명의 성인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해왔는데, 이들 대부분이 학교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 50대~70대의 고령층임.
 - 또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소외계층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추구하고자 한 사업임. 이 가운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죽음 준비를 포함한 노후 준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직업 잠재력 개발이나 취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교육도 포함되어 있음. 해당 사업은 타 부처 정책 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2009년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됨.

▣ 베이비붐 세대 인생 설계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⁶⁾

-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인생 설계 프로그램으로는 ‘제3기 인생 설계 프로그램’으로 특성화될 수 있음. 해당 프로그램들은 제3기 인생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다른 이들의 은퇴 설계를 돕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운영 주체면으로는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대학의 참여가 저조함.
- 교육 비용은 참여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보다 외부 지원을 통해 무료 또는 저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6) 이소정 외(2008),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정리

- 명목상으로 드러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은 다양하나, 은퇴 후 삶의 다양성을 고려한 더욱 실제적인 내용과 방법의 다양함이 추구되지는 못하였음.
- 대부분 체계적이지 못하고 개별적 주제를 나열해 놓는 형태이며, 주로 재취업이나 재무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Ⅲ.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⁷⁾

- 한국인의 생애 주기별, 단계별 과제 및 관련 학습 요구에 대한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의 생애 주기 및 단계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각 단계별 생애 과업을 설정하고, 각 과업에서 제기되는 학습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성인 입문 이후에 부과되는 학습 과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학습 요구를 성, 연령,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변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세대를 위한 보다 실제적인 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학령기 이후에 수행되는 교육과 학습 과정을 ‘연장된 공교육 과정’으로 규정하고, 정책적으로 학령기 이후의 성인학습에 대한 공적 투자를 확대해야 함.
 - 저출산·고령화로 빚어지는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노인복지 비용의 확대에 의한 사회적 부담 및 공공 지출의 증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생산적 삶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 개인의 역량 확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됨. 따라서 이를 위한 각 부문의 학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
- 생애 설계 및 형성을 위한 학습 과정에 공급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훈련 자원들이 공공과 민간

⁷⁾ 이하의 시사점 및 제언은 베이비붐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생애 설계 및 형성 과정으로서 전 생애의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시각으로 이해해도 무방함.

영역에 공히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고유한 교육훈련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생애 주기별 과업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 자원들을 공공 영역에서 공급함과 동시에 민간에서 수행해 온 자생적인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현재 부족한 생애 학습의 자원을 양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다양한 평생학습 자원 및 관련 정보들이 실제 학습자들이 필요한 요건과 방식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통합 DB를 구축하고, 이를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평생학습계좌제와 연동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각 교육훈련 공급 단위들은 독립된(stand alone) 기관으로부터 평생학습사회의 상호 연계된 다양한 학습자원 공급기관 가운데 하나(node)로 파악되어야 함. 이에 각 교육훈련 자원의 공급 및 운영 단위는 상호 중복되지 않는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분야별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화된 연구 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고등교육에의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성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학에 대한 개념을 초기교육(initial education)기관으로부터 재교육,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기관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에 적합한 성인 학습자 친화적인 대학 체제를 구축해야 함.
 - ※ 위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현재 교과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학습선도대학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음.
 - ※ 대학 체제 구축 및 전환의 주요 내용
 - 교육과정 운영체제 전환: 제2의 인생 설계 관련 교육과정들은 그것의 목적에 따라 운영상의 즉시성, 다양성, 유연성, 학제성(융합성) 등의 특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학과 중심의 기존 교육시스템으로 접근하기 어려움.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시스템을 필요로 함.
 - 경력 개발 및 학습상담 지원 시스템 구축 및 보완: 학습자의 특성 및 관심사와 트랙별 교육 과정을 연관지어 학습경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체계적 수강계획, 학습설계, 진로설계를 유도해야 함.
 - 학습자의 학습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전략의 다양화 추구: 진입

- 과정, 교육과정 운영방식, 학습결과 인정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음.
- 성인 학습자 친화적 학사지원시스템 구축: 선행학습인정절차 도입, 성인 학습자 장학제도 확대 등을 고려.
 - 지역 산업 및 민간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로 학습 자원간의 유기적 연계 보장.
 - 블렌디드 러닝 환경 구축으로 교육방식의 다양화 추구: 교육내용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온 라인, 오프라인, 블렌디드의 다양한 교육방식 적용.
- 직업 및 경력 전환을 추구하고자 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해당 세대에 적합한 직업 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함과 동시에, 제2의 인생 설계 하에서 새롭게 추구되는 일과 삶의 모델을 발견,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의 출현을 도모해야 함.
 - 현재의 단순노무직 중심의 중고령자 적합 직종에서 벗어나,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 및 경력 정도에 적합한 다양한 직업 분야 및 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일과 경력의 개념을 확장시켜, 직업, 작업, 사회적 참여 및 봉사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인생 재설계 모델을 구축하고, 각 모델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성인 학습자들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으로 제시된 학습시간 부족과 높은 학습비용 문제에 대해 유·무급 학습휴가 시행이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확대 시행, 보육정책 강화 등의 정책적 지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직자의 경우, 사업주가 재직자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근로자들이 퇴직 전 6개월~1년의 인생 설계 교육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참고문헌

- 손유미(2011).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e-HRD Review 14-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손진곤 외(2010). 방송대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연구(1차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 이소정 외(2008).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석명 외(20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평생교육진흥원(2011). 100세 시대 평생교육의 새 길을 묻다. 제7차 평생교육정책포럼 자료집.
- 통계청. 인구센서스(2005)
- _____. 장래인구추계(2006)
-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